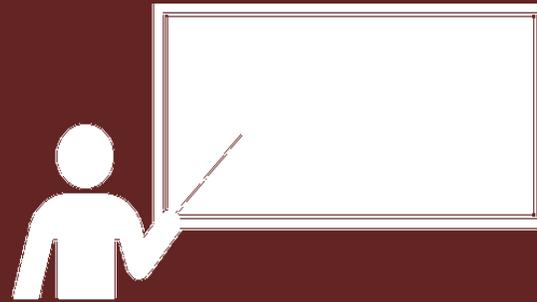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교직과 교사의 미래

고려대학교

신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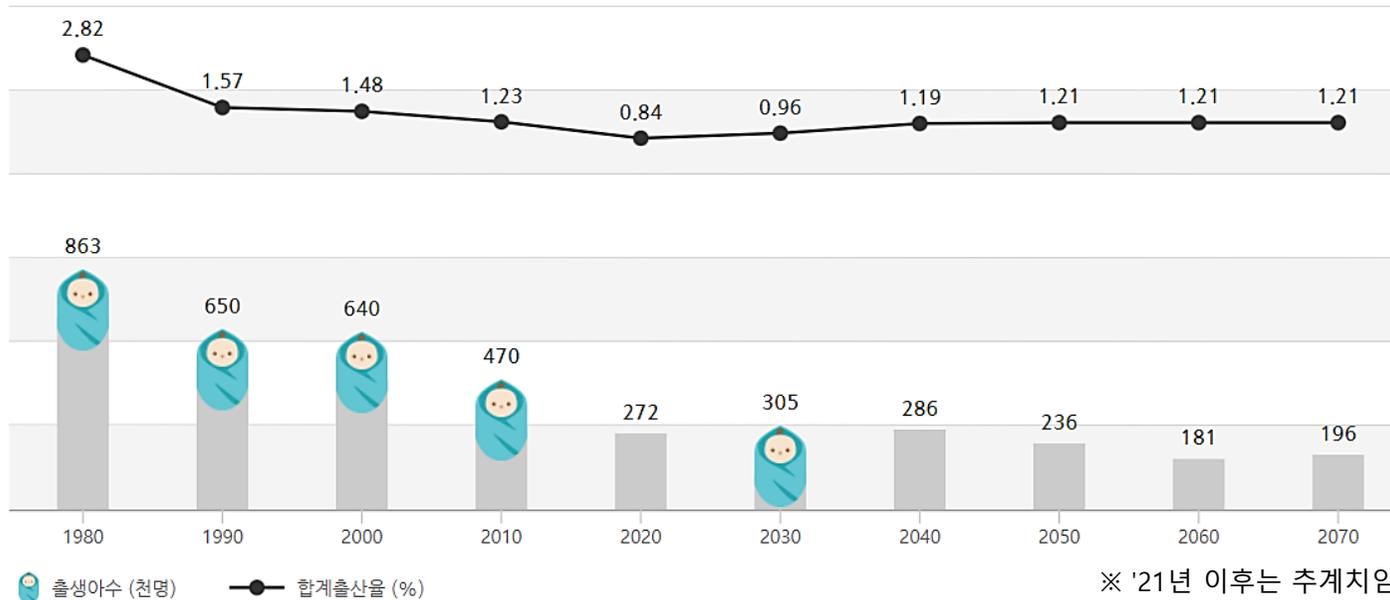
# 1.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 가.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3-1)

- 출산율 현황 : 1980년대초 80만명이 넘었던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수는 2020년 약 27만명에서 2023년에는 23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70년에는 약 20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출산율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2년부터 초저출산율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되다가 2018년에는 0.98명으로 역대 최초로 1명 미만 수준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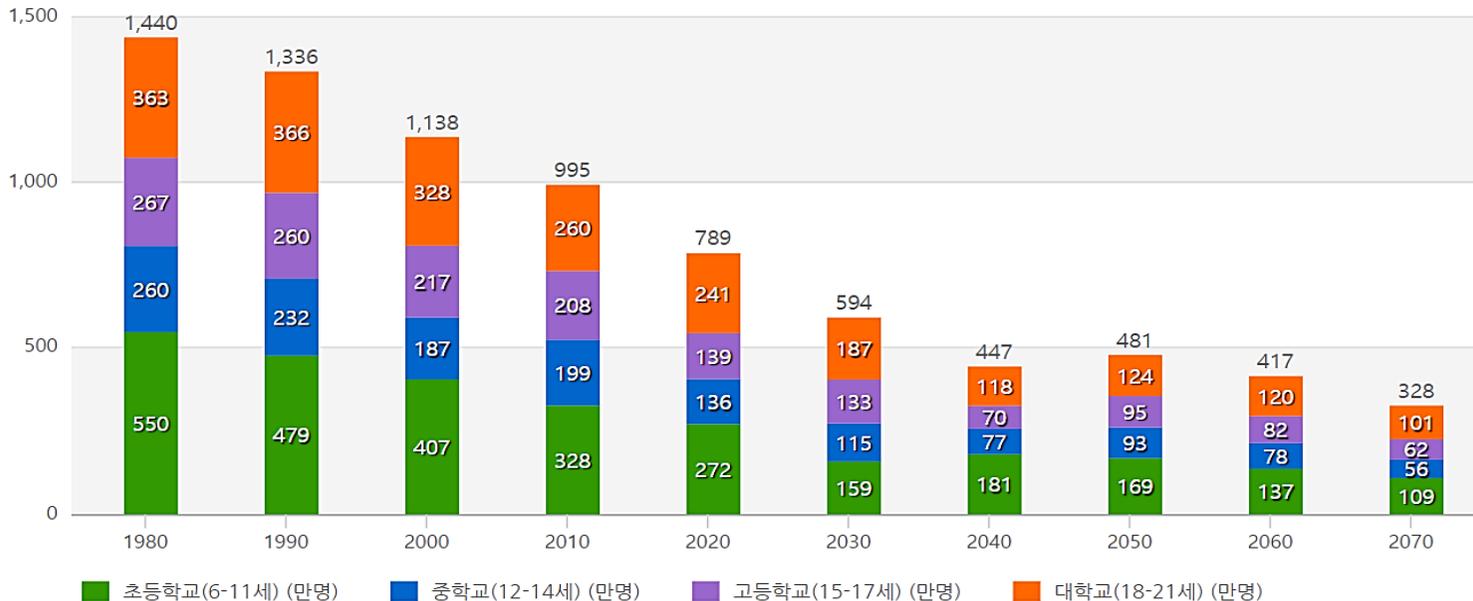
[그림]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변화 추계(1980-2070)

출처: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 가.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3-1)

- 출산율 저하의 영향 : 전국의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 789만 명에서 2035년 495만명으로 294만명이 급감한 후 2050년 481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2030년의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20년 대비 58.4% 수준,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는 84.4% 수준,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는 95.3% 수준,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77.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학령아동 변화 추계(1980-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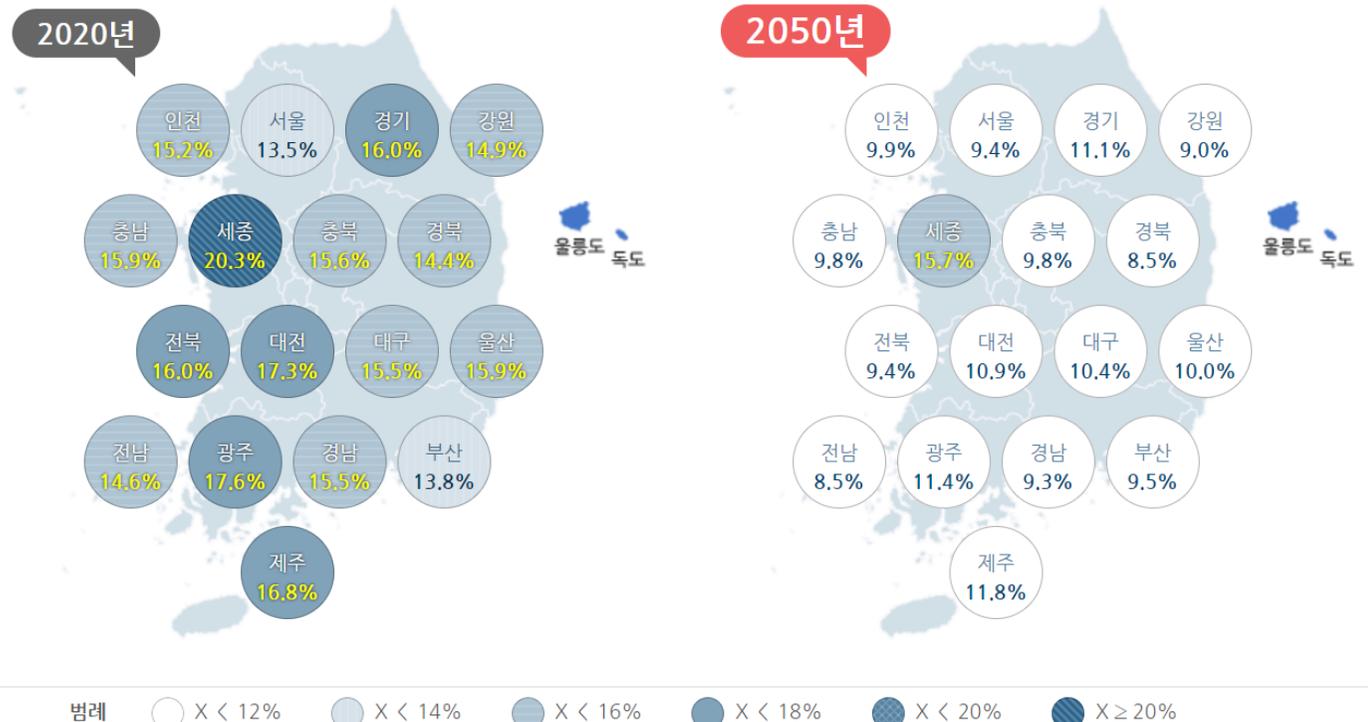
출처: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 가.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3-1)

- 시도별 학령인구 구성비 변화: 2020년 대비 2050년의 시도별 학령인구를 보면, 세종이 40.1%(3만 명) 증가한 반면, 울산(-53.7%), 전북(-51.6%), 전남(-50.8%) 등 5개 시도는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학령인구 시도별 구성비 비교(2020년과 2050년)

출처: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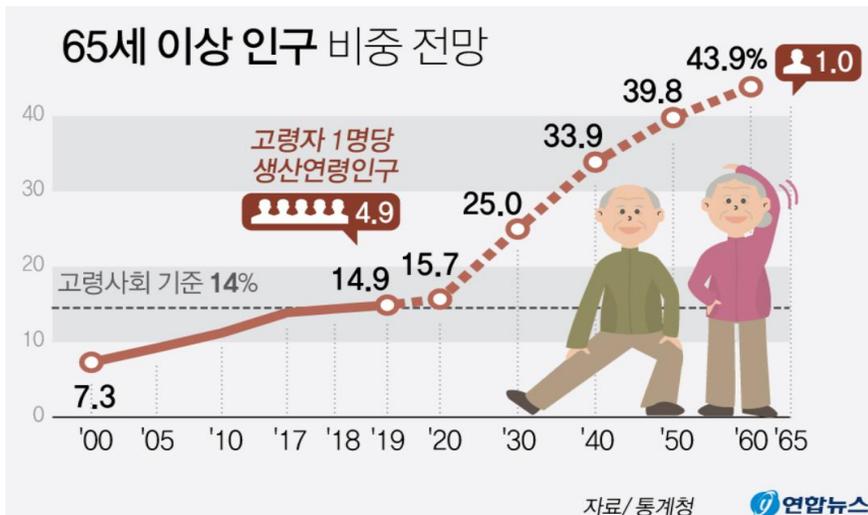
#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 가.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 □ 급속한 고령화 (3-2)

#### ■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 ✓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4.2%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 15.7%에 달함. 이는 일본보다 빠른 증가 속도로 2025년에는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60년에는 43.9%로 증가할 전망이다.
- ✓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 수준으로, 1970~2018년 한국의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름.



[그림] 한국 고령인구 비중 추이 (출처: 연합뉴스 2021.1.4일자)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 시간

(단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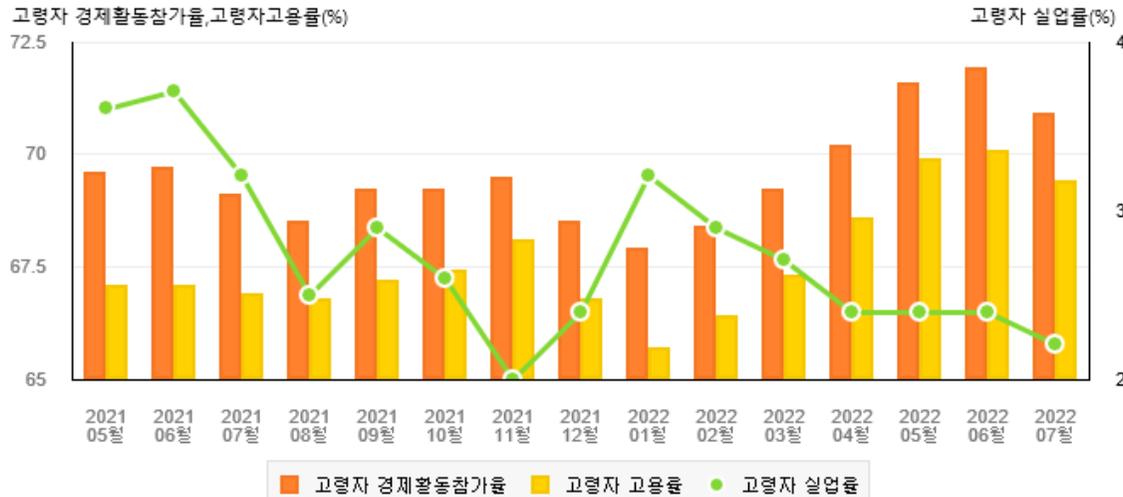
프랑스	114	(1865→1979)
미국	69	(1945→2014)
일본	24	(1970→1994)
한국	17	(2000→2017)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인 사회

[그림] 나라별 고령사회 진입 시간 (출처: 한국경제 2022.8.16일자)

## 가.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 □ 급속한 고령화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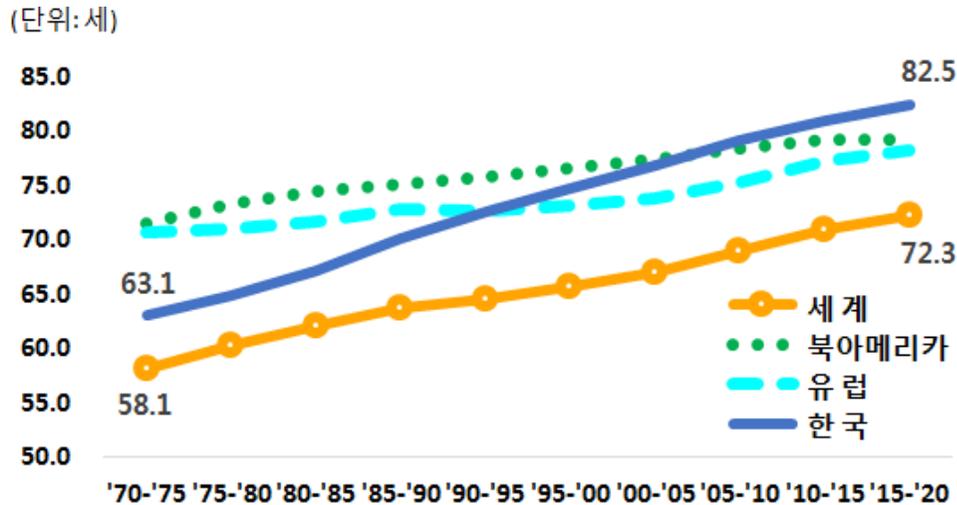


[그림]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출처: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 고령화의 영향 : 생산 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동력의 구조적 부족 초래, 노년층 실업과 노후 부담 증대, 고용구조의 변화 초래
-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 ✓ 고령자의 고용률: '22년 7월 고령자(55세-64세) 고용률 69.4%, 경제활동참가율 70.9%.
  - ✓ 다른 OECD국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고령자는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은 매우 높으나 일자리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임. (출처: OECD 2019 자료)

## 가.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 □ 급속한 고령화 (3-2)



[그림] 세계와 한국의 기대수명(연평균) 추이(출처: 통계청)

### 한국인 기대수명 예측 변화



[그림] 한국인 기대수명 예측 변화

- 세계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72.3세로 1970~1975년 58.1세에 비해 14.2세 증가한 반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82.5세로 1970~1975년 63.1세에 비해 19.4세 증가함.
- 이는 2011년 당시 인구통계 전문가인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팀이 예측했던 기대수명 81.5세보다 1세 더 높은 것으로,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령화의 교육적 요구 : 고령자와 여성의 평생교육 수요 증대, 재직근로자, 실직자, 전직자 평생교육 요구 증대, 고등교육 이수 희망 75.9% → 새로운 생애주기모형에 따른 생애 재설계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 가.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 □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3-3)

-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 혼인이나 기타 사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계 한국인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180,498명, 2019년 말 기준 2,524,656명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21년 말 기준 1,956,781명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

<표> 최근 5년 간 체류외국인 증가추이

코로나19 영향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인구	51,778,544	51,826,059	51,849,861	51,829,023	51,638,809
체류외국인	2,180,498	2,367,607	<b>2,524,656</b>	<b>2,036,075</b>	1,956,781
장기체류	1,583,099	1,687,733	<b>1,731,803</b>	<b>1,610,323</b>	1,569,836
단기체류	597,399	679,874	<b>792,853</b>	<b>425,752</b>	386,945

#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 나. 사회구조 변화 : 양극화, 교육불평등

### □ 소득 분배구조의 악화 (4-1)

- 2000년대 들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계층 간 양극화 심화.
  - ✓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에 게재되어 있는 김낙년(2016)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25.1%, 상위 10%가 65.5%의 자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표>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변화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니계수	0.388	0.385	0.372	0.363	0.352	0.355	0.354	0.345	0.339	0.331
소득 5분위배율(배)	8.32	8.10	7.68	7.37	6.91	6.98	6.96	6.54	6.25	5.85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50%이하, %)	18.6	18.3	18.4	18.2	17.5	17.6	17.3	16.7	16.3	15.3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 지니계수는 전체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에서 1사이의 비율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냄.
- ❖ 소득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 ÷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 값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음을 나타냄.
- ❖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 나. 사회구조 변화 : 양극화, 교육불평등

### □ 소득 분배구조의 악화 (4-1)

- 2000년대 들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계층 간 양극화 심화
  - ✓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14.4%, 상위 10%가 45.8%의 자산을 차지함.
  - ✓ 1980년에는 상위 10%가 차지하는 자산 비율이 32.3%였다면, 2005년에는 40.1%, 2021년에는 45.8%로 꾸준히 증가하며 소득 불평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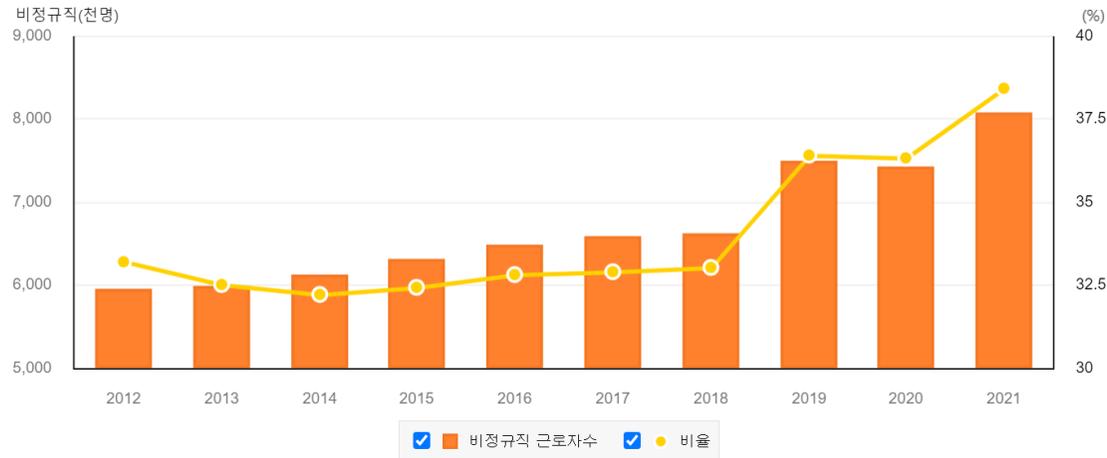
[그림] 연도별 소득 불평등 비율(상위 10%가 차지하는 자산 비율)

출처: WID

## 나. 사회구조 변화 : 양극화, 교육불평등

### □ 근로 조건의 변화 (4-2)

-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할 때,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3년 32.6%로 30%를 넘어선 이래 2017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약 3분의 1인 32%를 유지함(통계청)
- '21.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천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8.4%임. 60세 이상(29.8%), 50대(20.7%), 40대(17.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43.2%), 대졸이상(35.2%), 중졸이하(21.6%) 순으로 나타남.



[그림]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율

출처: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2019년부터 조사결과는 병행조사의 효과로 과거 미포착 기간제근로자 규모가 반영되었으므로 전년도 결과와 증감 비교 불가

## 나. 사회구조 변화 : 양극화, 교육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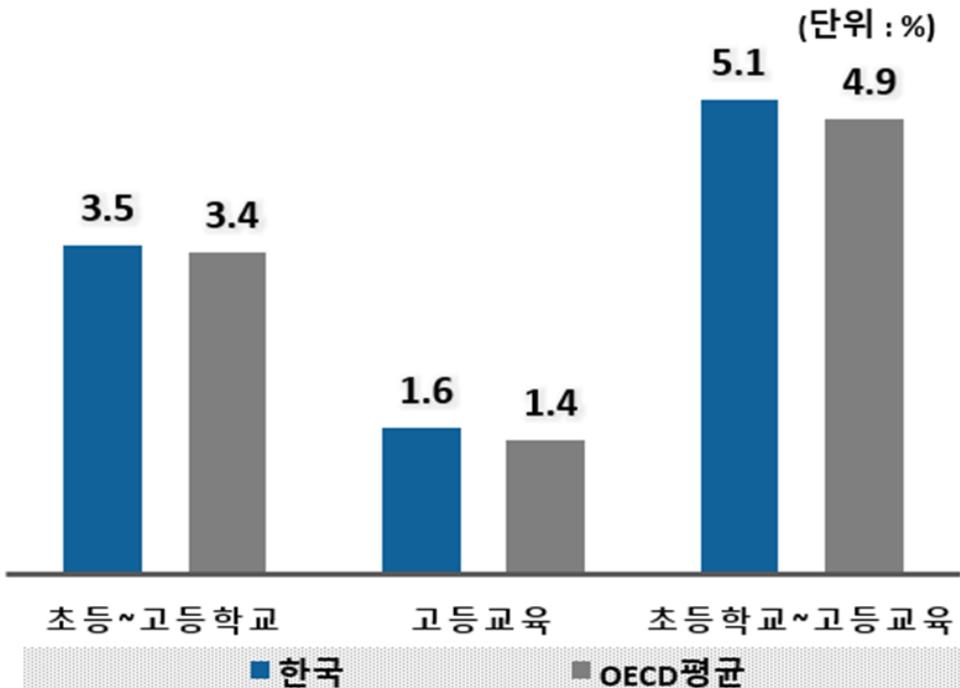
### □ 교육불평등 심화 (4-3)

- 계층 간 격차의 심화는 교육비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는 계층 간 교육격차로 연결될 가능성을 갖고 있음.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 ✓ 2016년 5분위 소득계층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665,461원으로 1분위 소득계층의 지출액 83,297원의 8배에 달함. 정규 교육비 지출 격차는 7.1배, 학원·보습교육비 등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9.1배로 벌어짐.
- 2018년 모든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1%로 OECD 평균보다 높음(OECD 교육지표 2021).
-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고, 민간재원은 1.3%로 OECD 평균보다 높음.
- 2016년 통계청의 '2016 사회조사'결과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65.3%에 달했고,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20~40대의 경우 '보충 교육비'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50~60대 이상은 '학교 납입금'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조사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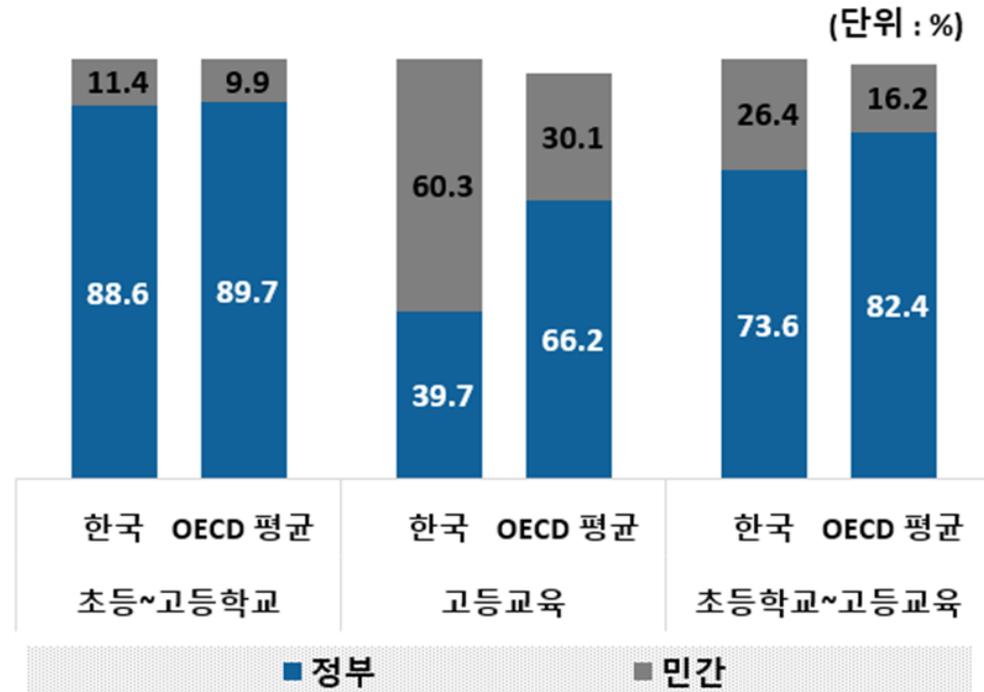
#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 나. 사회구조 변화 : 양극화, 교육불평등

### GDP 대비 공교육비 현황(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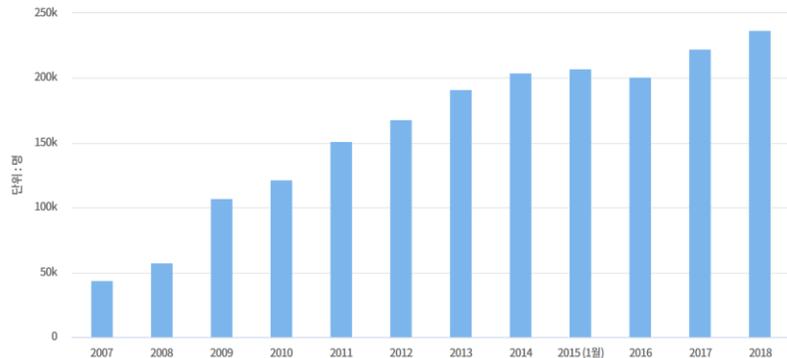
###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2018년)



## 나. 사회구조 변화 : 양극화, 교육불평등

### □ 교육취약계층의 증가 (4-4)

- 결혼 이민자 및 혼인 귀화자 수의 증가에 따라 외국계 주민 자녀(결혼 이민자와 한국 국적취득자의 자녀)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 2007년 외국계 주민 자녀는 44,258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237,506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함.
- 한부모 가구 비율은 2014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10.5%에 도달한 뒤, 2015년부터 꾸준한 감소를 보이며 2020년에는 7.1%의 비율을 보임(출처: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조손가구는 117,705가구로, 2010년의 119,294가구 보다는 감소하였음.



[그림] 연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07-2018)

출처: 사회보장통계

<표> 연도별 한부모가구 및 비율 현황(2010-202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17,339	17,687	18,119	18,388	18,705	19,561	19,838	20,168	20,500	20,891	21,485
한부모가구	1,594	1,639	1,796	1,880	1,970	1,608	1,540	1,533	1,539	1,529	1,533
한부모가구 비율	9.2	9.3	9.9	10.2	10.5	8.2	7.8	7.6	7.5	7.3	7.1

출처: 통계청

<표> 연도별 조손가구 현황(2010-2020)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조손가구	119,294	113,111	109,241	112,578	113,297	114,211	117,705

출처: 통계청

## 다. 경제구조 변화 : 세계화에 따른 산업구조와 인력수요의 변화

### □ 세계화와 경쟁의 심화 (4-1)

- 세계화(globalization)란 세계 차원의 정보·기술·자본·상품·서비스·인적 교류가 증대하면서 나타나는 국가 간 상호 연결성의 증대임.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장벽이 제거되면서 20세기 후반 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으며, 앞으로 세계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임. 그에 따라 개인 간, 기업 간, 국가 간 경쟁은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음.
- **변화의 조짐** : 그 동안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고 아시아 신흥국의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경상수지 불균형, 부의 재분배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전 세계적 차원의 경기 침체와 경제 공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보호주의가 부활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음.
- 국가 간, 기업 간, 집단 간, 개인 간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소득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와 기술변화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격차로 산업·기업·지역, 고용·소득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다. 경제구조 변화 : 세계화, 산업구조와 인력수요의 변화

###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창조형 인재에 대한 요구 증대 (4-2)

-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지식 기반 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 특히 지식 기반 서비스업비 중 확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류근관 외, 2011).
  - ✓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창조형 노동의 비중도 증가 추세임.

### □ 교육-노동시장 연계 취약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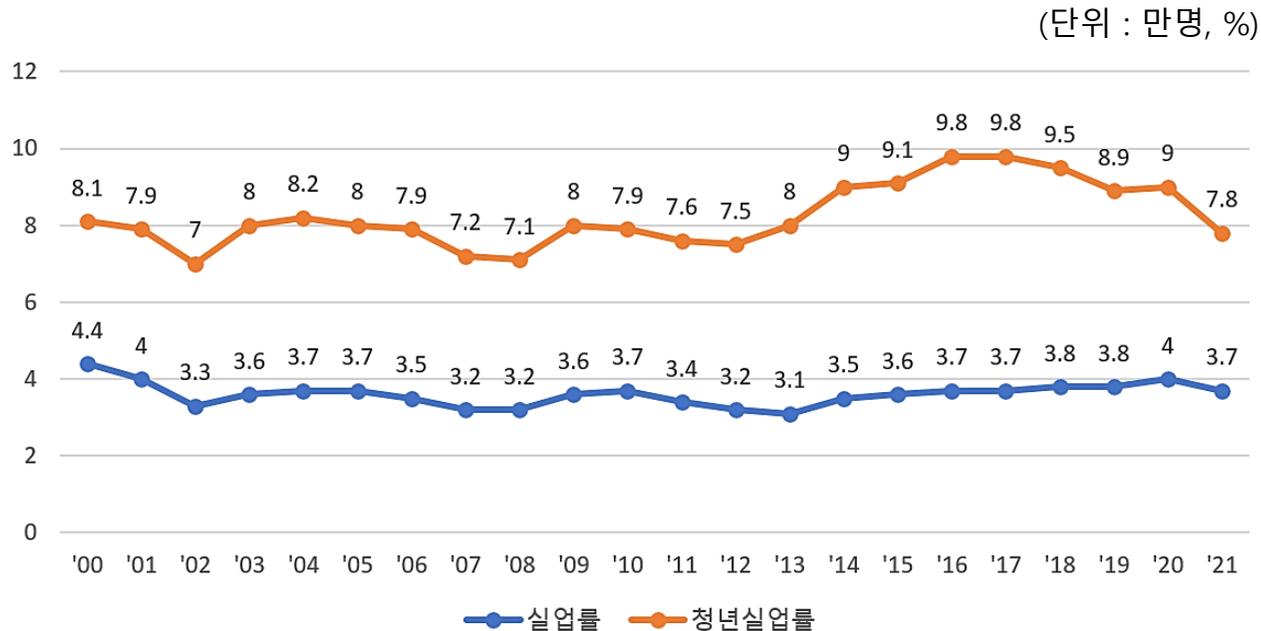
- 창조형 인재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노동시장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의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
  - ✓ 통계청의 '2020 사회조사' 결과,
  - ✓ 2010년 취업자가 느끼는 본인의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는 '일치'하는 비율(33.4%)이 '불일치' 비율(40.3%)보다 적음.
-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문제 뿐 아니라 대학 졸업자의 하향 취업 문제 심각.
  - ✓ 29세 이하, 취업 경험 6년 이하 대졸 청년층의 하향 취업 비율은 직종기준 32.7%, 임금기준 36.1%, 취업자 주관적 평가 경우 22.0%(신선미·손유미, 2008).

#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 다. 경제구조 변화 : 세계화, 산업구조와 인력수요의 변화

### □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4-4)

-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 ✓ 2000년부터 2013년까지 7~8%대를 유지하던 청년실업률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9%대를 유지하다, 2021년에는 7.8%로 다소 감소된 수치를 보임.



[그림] 청년층(20-29세) 실업률 추이(2000-202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를 차트로 표현

## 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 □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첨단화 (2-1)

- 미래 사회는 첨단기술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가면서 생활 및 교육공간에서 폭 넓게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개발은 통신정보기술 발달에서 그치지 않고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은 다가오는 수십 년간 기술개발의 중심이 됨.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 예측은 지구촌이 과학기술혁명기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줌(박영숙 외, 2007).
  - ✓ 의료기술의 발전, 유전자 공학의 발전으로 인한 수명 연장은 고령화 사회를 촉진할 것이며, 교통기술의 발전은 지역 간 인적·물적 소통을 증대시켜 점차 지구촌을 일일생활권 시대로 이끌어 가고 있음.
- 지역과 국가 간의 수월한 이동은 곧 교육과 학습을 위한 이동을 의미하기도 함. 이러한 이동성의 증가는 교육개방과 경쟁을 가속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및 전반적인 교육혁신을 요구하고 있음.

## 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 □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첨단화 (2-1)

- 미래 사회는 첨단기술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가면서 생활 및 교육공간에서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개발은 통신정보기술 발달에서 그치지 않고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은 다가오는 수십 년간 기술개발의 중심이 됨.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 예측은 지구촌이 과학기술혁명기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줌(박영숙 외, 2007).
  - ✓ 의료기술의 발전, 유전자 공학의 발전으로 인한 수명 연장은 고령화 사회를 촉진할 것이며, 교통기술의 발전은 지역 간 인적·물적 소통을 증대시켜 점차 지구촌을 일일생활권 시대로 이끌어 가고 있음.
- 지역과 국가 간의 수월한 이동은 곧 교육과 학습을 위한 이동을 의미하기도 함. 이러한 이동성의 증가는 교육개방과 경쟁을 가속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및 전반적인 교육혁신을 요구하고 있음.

## 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 □ 소셜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2-2)

- IoT(사물인터넷) 및 네트워크화로 다양한 기술간,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발히 발전하며, 언제 어디서나 접속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세상은 이미 실현되었음.
- 소셜 네트워킹 환경이 보편화됨에 따라 OSMU(One Source Multi-Use)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육의 대두 등 다양한 학습의 출현(안선희 외, 2010).
- 한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토큰), 가상인간까지 등장하며 가상 세계의 확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인공지능



출처: 인공지능신문(2020.1.14.일자)

메타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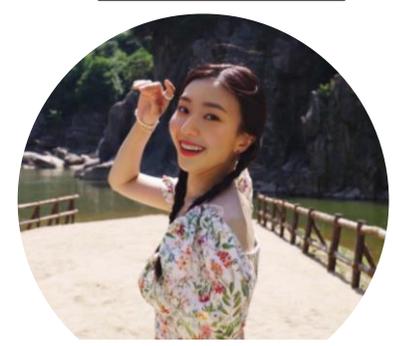
출처: 비즈니스위치(2022.6.30.일자)

NFT



출처: 특허뉴스(2022.8.12.일자)

가상인간



출처: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 마.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의의 (3-1)

- 2016년 다보스포럼은 인류의 역사에 큰 변혁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을 선언
- 인류의 역사를 통해 있었던 이전의 산업혁명은 생산관계와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생산력의 질적 발전을 의미
- 최근에는 기술진보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 산업혁명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서 속도(Velocity), 범위(Scope), 그리고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System Impact)이 매우 크다는데 모든 학자들이 동의

출처	정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제조기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현대사회 전반의 자동화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Cyber-Physical System과 IoT, 인터넷 서비스 등의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영어
다보스포럼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
매일경제용어사전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

## 마.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 변화 (3-2)

-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은 향후 고용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
- 하지만 알고리즘화가 쉬워 인공지능에 빠르게 잠식되는 대표적 영역도 있고, 비정형적이고 업무 내용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이하는 영역도 있음
- 이러한 서로 이질적인 영역의 업무 진행을 위해 세련된 소통, 설득 기술과 포괄적 시각, 고도의 유연성, 나아가 창의성이 필요한데, 이런 능력은 인간에게 고유의 것
- 이런 이유로 미래의 노동은 인간과 기계가 각자 잘하는 업무를 분담하는 협업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이와 함께, 인공지능의 중립성과 윤리성,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여부, 인공지능에서 인공의식으로 진화가능성,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가치 부의 양극화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등 과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제기될 것



#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

## 마.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 지능정보사회의 도래가 교육에 미칠 영향 (3-4)

#### ▪ 단기적 영향

- ✓ 가상과 실재를 융합한 형태의 학습이 증가
- ✓ 교육개혁 담론 속에서 논의되는 학제개편, 문이과 통합을 넘어서는 교과간 융합학습모델,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수업시간, 학년제, 교사협력 등),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Maker Space, 3D Printing)의 제공, 혼합학습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모델 개발, 정보의 접근성 강화 등의 제도적 지원이 교육행정적으로 모색

#### ▪ 중기적 영향

- ✓ 보다 제도적 변화를 수반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
- ✓ 협력학습 접근법의 증가, 소비자에서 창작자로서 학생의 전환
- ✓ 학습경험과 교류를 통한 집단지성 활동, 협력학습 접근법의 증가로 협력학습모델, 학교간·지역간·국가간 그룹 활동, 온라인 토론·토의,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프로젝트 활동으로 전환
- ✓ 교과, 비교과 교육과정이 재구조화 되고 도서관, 지역사회 등이 시공간적으로 연결되면서 학교를 둘러싼 마을이 하나의 배움의 망으로 연결



#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

## 마.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 지능정보사회의 도래가 교육에 미칠 영향 (3-3)

#### ▪ 장기적 영향

- ✓ 패러다임의 이동
- ✓ 학교를 포함해 공교육체제의 운영과 역할에 대한 재고(Rethinking How Schools Work)와 보다 심층적인 학습 접근법으로의 전환(Shift to Deeper Learning Approaches)이 전개
- ✓ 전통적 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정(Rethinking How Schools Work)은 필연적
- ✓ 개인 친화적 교육과정(Individual Friendly Curriculum)으로 전환되면서 교육과정이 유연화되고 개방성, 자율성, 리더십, 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학교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
- ✓ 더 나아가 교육학 내부에서 다양하게 지속해오던 생활중심교육과정, 즉 학습과 실생활에의 적용, 프로젝트 학습, 과제기반 학습이 확장되어 학생 개인별로 지식, 관심사, 능력에 따라 공부하고 평가 받고 개개인의 학습 계획이 정당성을 부여 받는 보다 심층적인 학습 접근법으로의 전환(Shift to Deeper Learning Approaches)



#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

---

## 바. 지식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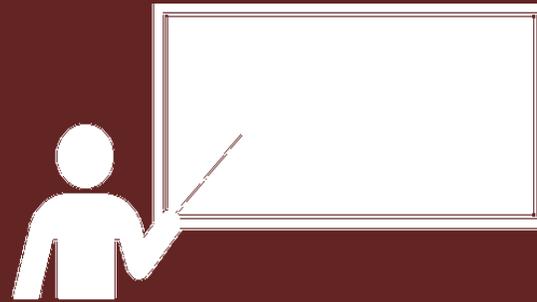
### □ 창의적 지식학습사회 (2-1)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전반에 정보활용이 내재되어 있고 정보처리 역량이 극대화 됨.
- 정보공유를 토대로 개인의 창조적 개성 발현의 기회가 높고,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공급되고, 시장에서의 생산성이 높아짐.
- 지식학습사회에서는 지식을 공유하고 공유된 지식을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극대화하는데 활용하게 됨.
- 연결성을 바탕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온라인 및 협업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과 일의 특징도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게 됨.
- 한발 더 나아가 가상공간(메타버스)과 가상화폐, 가상인간의 구현으로 현실과 가상 세계의 연결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바. 지식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의 발전

### □ 평생학습사회로의 발전 (2-2)

- 급속한 고령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지능정보 학습환경의 가속화는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평생학습사회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 경기성장 침체로 장기 저성장 기조 유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 심화 등으로 인한 고용패턴의 변화 및 경제적 위기해소를 위해 성인학습의 접근성과 품질이 강조됨.
-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교육 확대로 인한 교육비 지출 부담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교육복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됨.
- 다양한 개인의 학습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들이 정부, 대학, 기업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다양하게 제공될 것으로 보임.



## 2.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



#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

## 가. 교육의 새 패러다임

□ 학령기(학교)교육체제 → 평생학습체제 + 디지털기반학습체제

<표> 전통적 학교교육체제와 평생학습체제 비교

구분	전통적 학교교육체제	평생학습체제, <u>유비쿼터스</u> -학습국가
교육대상	▪ 학령기 아동·청소년	▪ 모든 사람(영아에서 어르신까지)
성인학습	▪ 개인책임, 소비형 학습(장식품)	▪ 사회책임(공공성 인정), 생산적 <u>복지형</u> 학습
교육기반	▪ 학교와 대학 ▪ 형식적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 모든 기관 및 시설 ▪ 테크놀로지가 지원하는 교육
학습결과 인증방식	▪ 졸업장 및 학위(學歷·校歷중심사회) ▪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미흡	▪ 자격증, 학력인증제도 구비(능력중심사회) ▪ 학교 밖 학습경험까지 인증 가능
교육관리	▪ 국가 인정의 교육전문가 ▪ 획일적이고 경직된 <u>중앙통제형</u> 관리	▪ 학습자와 시민공동체 ▪ 다양하고 유연한 <u>분권형·자율형·지원형</u> 관리
교육과 훈련	▪ 교육과 훈련의 분리 ▪ 학교와 일터의 분리	▪ 교육과 훈련의 연계 ▪ 학교와 일터의 연계
교육재정	▪ 인재 양성을 위한 비용으로 인식 ▪ 소극적인 재정 투입	▪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복지비용 ▪ 국가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투자
교육주권	▪ 국가 관료와 교원(교육자)의 권력 분점	▪ 학부모·주민 등 모든 국민의 교육주권 실현

\* **디지털기반학습체제:** 지식기반의 평생학습시대에 국민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습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개인적 장애, 시간, 장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과 환경, 개인의 삶을 통합한 학습체제

#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

## 나. 평생 학습사회 교육의 도래



[그림] 미래 교육의 변화 모습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교육 비전 2020

## 나. 평생 학습사회 교육의 도래

### □ 참여주체의 역할 변화 (4-1)



[그림] 교사와 학생의 역할 변화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교육 비전 2020

- ✓ 교사 :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습의 조력자(멘토) 및 학습 디자이너로 변화
- ✓ 학생 : 지식의 수용자에서 지식을 학습/재구성 하고 동시에 창조하는 **지식의 주요 생산자로 변화**
- **미래사회에서의 학습자 특성**
  - : 개인의 자유와 개별화, 놀이로서의 학습, 네트워크 및 협업, 즉각적 상호작용, 탐구적 정보처리, 멀티태스킹(돈탭스콧, 2009 등)
- ✓ 학부모 : 학습 협력자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주요 참여자로 변화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교육의 방식은 최초에 ICT 활용교육부터 출발하여 e-러닝, m-러닝, u-러닝에 이르면서 계속적으로 진화

## 나. 평생 학습사회 교육의 도래

### □ 교육체제의 변화 (4-2)

- 학교가 표준화된 지식을 평균수준에 맞추어 대량으로 전달하는 장소에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장소로 진화
- ※ 농경사회의 도제 제도 →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표준화된 학교체제 → 정보사회의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체제
- 초-중-고-대학으로 연결된 선형 교육체제에서 평생을 통해 필요에 따라 학습하는 비선형 모델로 진화
  - \* **학교교육 단계를 거치지 않고 유명 예술 및 스포츠 분야 인사들의 발돋움**, 세계최고의 과일판매 체인인 "돌푸드"의 데이비드 머독 회장은 고교 중퇴 후 사업가로 변신
- 교육체제의 유연성이 강화되고 개인의 선호 및 미래의 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로 진화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집단지성, 협력학습, 국내외 학습자원의 공동 활용 등에 대한 관심 증가



#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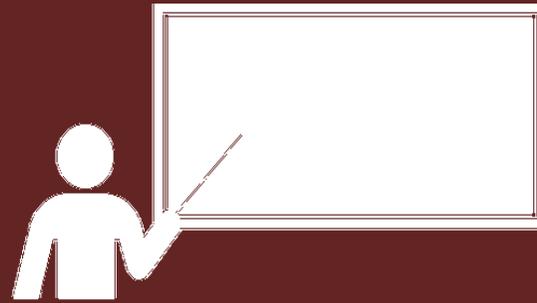
## 나. 평생 학습사회 교육의 도래

### □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 (4-3)

- (1) 정형화된 교과 지식 중심에서 체험을 기반으로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강조,
- (2) 문제해결을 중시하고, 과정 중심의 개별화 된 평가 지향,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

### □ 학교기능의 변화 (4-4)

- 학교기능과 학습방법의 변화는 국가 사회적으로도 인재확보 및 지식관리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됨
-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방법의 변화가 가속화 됨
- 사람들의 삶의 기회와 역량을 제고하는 생산적인 교육의 지속적인 공급으로서 평생교육의 중요성 증대
- 인류의 상상력과 현실의 간격을 극복해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미래교육 환경을 설계



### 3. 교직의 미래와 교사의 역할 변화



# 교직의 미래와 교사의 역할 변화

## 가. 디지털기반학습체제에서 명실상부한 전문직으로의 발돋움

-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으로 전문적 수업 기술과 학습방법을 습득해야 교직에 진출할 수 있음
  - ✓ 교사의 전문적 기술 습득과 아울러 교직에서 요구되는 정의적 특성이 함께 발현되어야 진정한 전문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음(하이테크, 하이터치)
  - ✓ 이러한 전문화의 조건을 반영한 교원교육 방법의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함
-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을 담보로 인정받는 전문직으로의 토대 마련
  - ✓ 막연한 전문직 → 주장하는 전문직 → 요구하는 전문직 → 인정받는 전문직 → 존경 받는 전문직
- 교사가 사회로부터 학습 전문가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이에 합당한 처우 개선이 기대됨

# 교직의 미래와 교사의 역할 변화

## 나. 저출산으로 인한 입직의 어려움 가중

- 저출산에 따른 학교 수 및 교원 수의 감소로 교직 진출이 어렵게 됨.

<표 6> 고등학교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변화 추이 ()=증감률, %

년도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2011	1,944,710	56,907	2,201
2015	1,733,928(-10.84)	50,739(-10.84)	1,963(-10.81)
2020	1,297,385(-33.29)	37,965(-33.29)	1,468(-33.20)
2025	1,203,385(-38.12)	35,214(-38.12)	1,362(-38.12)
2030	1,117,205(-42.55)	32,692(-42.55)	1,265(-42.53)

출처 : 박재운 외 (2010).

<표 7> 중학교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변화 추이 ()=증감률, %

년도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2011	1,875,747	54,578	2,903
2015	1,558,904(-16.89)	45,359(-16.89)	2,413(-16.88)
2020	1,279,813(-31.77)	37,238(-31.77)	1,981(-31.76)
2025	1,220,065(-34.96)	35,500(-34.96)	1,888(-34.96)
2030	1,120,845(-40.25)	32,613(-40.25)	1,735(-40.23)

출처 : 박재운 외 (2010).

- 교원양성기관 규모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함.

-교육부는 2010년부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양성 인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오고 있음

# 교직의 미래와 교사의 역할 변화

## 다. 교직의 직업적 가치가 상승하고, 근무의 질이 향상됨

- 교직의 희귀성과 고유한 직업기술체계의 구축으로 교사의 직업 가치가 향상됨.
  - ✓ 이와 함께 교수 방법 기술의 발달과 학습장면의 유연화는 교사로 하여금 재택근무, 탄력근무제 적용 등을 가능하게 하여 근무여건이 현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 교직의 직업만족도 하향에 따른 개선 대책과 교직의 희귀성 증가가 기대됨.
  - ✓ 한국 교총이 스승의 날을 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원이 직업에 만족하는 정도는 '16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 '12(56.3%)->'16(70.2%)->'19(52.4%)->'20(32.1%)->'21(35.7%)->'22(33.5%)
  - ✓ 교원의 만족도 저하의 주된 이유는 '교권 추락',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잡무부담의 가중'에 따른 자존감 하락에 있음
  - ✓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학교교육체제의 정형화된 틀이 거시적인 사회변화에 이미 적응되어 있는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교육적으로 수용하는데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 ✓ 한계 효용에 다다른 전통적 교육체제에서의 문제는 디지털기반 평생학습체제에서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교원양성대학의 인기는 당분간 여전할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직업의 안정성, 근무-생활의 균형성, 전문적·사회적·심리적 자본의 결합을 통한 희소가치 창출).



# 교직의 미래와 교사의 역할 변화

## 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교직 임용체계가 다변화됨

- 학부모,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학교의 설립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들 학교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들의 임용방식도 기존의 임용체계에 의존하지 않게 됨
  - 예: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영재학교, 대안학교, 통합학교 등의 교사
- 전통적인 공립학교에서도 학교 업무의 전문화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교직원을 채용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예: 상담교사, 진로지도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교육복지사, 학교행정사, 교육공무직 등

## 마. 교사는 지식 전달자 보다 학습의 개척자(trailblazers)로서의 역할이 강조됨

- 교사는 직접 가르치기 보다는 지식 정보의 기획, 관리, 조직, 의미 부여를 통해 학생의 학습을 설계하고 도와주는 디자이너, 연결자,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됨.
- 이에 따라 교사는 창의적 교수-학습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원양성 과정에서 배양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은 창의성 개발이 가능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운영 해야 함.

## 바. 융·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능력과 미래 역량을 가진 학습자이자 실천가로서 교사의 역량 제고

- 융합 능력이 경제적 가치 창출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요구되는 미래사회에서 학교교육의 패턴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됨. STEAM 교육 등을 통해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의 저변 확대와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상황임.
- 다양한 콘텐츠의 통합적 내용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creative design),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으로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활동으로서 융합인재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중요한지 알아야 배우고 싶은 흥미가 생기고, 지식의 내용을 이해하고 깊이가 있어야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탐구심이 발동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갖게 되면 남을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생김. 이런 점에서 융합교육의 학습자이자 실천가인 교사의 양성교육과 재교육 과정이 융·복합 교육 친화형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 최근 정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메타버스, 클라우드 시스템 등 디지털 신기술의 빠른 성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함(교육부, 2022).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은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022-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함. 코로나19로 인해 앞당겨진 디지털 교육환경이 교사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요구하고 있음,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함.

**감사합니다**